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 개소 -
- 전담 인력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실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1. 신청접수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www.mohw2030.co.kr),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도움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년미래센터 전담 서비스 지원

1) 가족돌봄청년

청년미래센터는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족돌봄청(소)년을 상시 발굴한다.

전문인력은 상담을 통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생활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②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 선정기준 :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 ② 동일 주소지 거주 ③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
다만,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 선별

2) 고립·은둔청년

8월 14일부터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 취약청년 발굴 및 민·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청년 개개인의 성장, 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1. 신청접수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www.mohw2030.co.kr),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도움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년미래센터 전담 서비스 지원

1. 가족돌봄청년 지원

이전까지 학교나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 시까지 책임지고 지속해서 밀착 관리한다.

먼저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족돌봄청(소)년 상시 발굴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은 상담을 통해 ①아픈 가족 유무, ②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③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의 가족 돌봄부담을 덜어준다. ②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하여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전문인력은 청년의 적성, 대학 전공, 진로 희망, 취업 방향 등 상담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 미래계획(자기돌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상 목표에 맞게 자기돌봄비가 적정히 사용되도록 매달 용처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각종 법률상담,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종합 연계한다.

2. 고립·은둔청년 지원

8월 14일부터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 홈페이지 그림, 자가진단 그림 >

고립·은둔 자가진단

49%

Q1-6 귀하가 개인적인 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없다	1명	2명	3-4명	5-8명	9명 이상
☐	☒	☐	☐	☐	☐

다음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결과 고립 위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한다.

< 맞춤형 프로그램 기본방향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
은둔청년 특화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 낮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 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간단한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 취약청년 발굴 및 민·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청년 개개인의 성장, 회복을 목표로,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학업 정보,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 : (통합지원)생계비·주거비·돌봄비·교육비 등, (심리지원)자조모임

** IBK희망나래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취업·학업 지원 프로그램 및 생활비, 장학금 등 지원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면서 “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포스터
 2. 고립·은둔 자가진단 화면
 3.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실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장영진 (044-202-3701)
		담당자	사무관	정의서 (044-202-3702)





지원대상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거주 청년

■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기준

※ 35세 이상~39세 이하인 자 중 상당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 청년미래센터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①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전담인력과 상담 후 자기돌봄계획 수립 필요
-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지원

- ②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③ (청[소]년 본인)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전담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mohw2030.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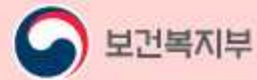
오프라인 신청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천, 울산, 충북, 전북 소재)

문의처

청년미래센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032-874-7700~1	052-243-3400	043-270-0291	063-901-1339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



무한한 가능성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가 함께 합니다!



나도 고립·은둔중?
온라인으로
간단히 테스트해 보세요.



지원대상 19~39세 고립·은둔 청년

- **고립·은둔청년이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
- 자가진단 테스트(www.mohw2030.co.kr) 결과 및 전담인력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거주 청년
- 출생연도 1985~2005년 기준
- 가족 포함 지원

지원내용

① 초기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②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③ 가족 지원(상담, 자조모임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mohw2030.co.kr

오프라인 신청 청년미래센터 문의(인천, 울산, 충북, 전북 소재)

문의처

청년미래센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032-874-7700~1	052-243-3400	043-270-0281	063-901-1339

고립·은둔 자가진단

49%

Q1-6 귀하가 개인적인 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없다	1명	2명	3-4명	5-8명	9명 이상
☐	☒	☐	☐	☐	☐

다음 →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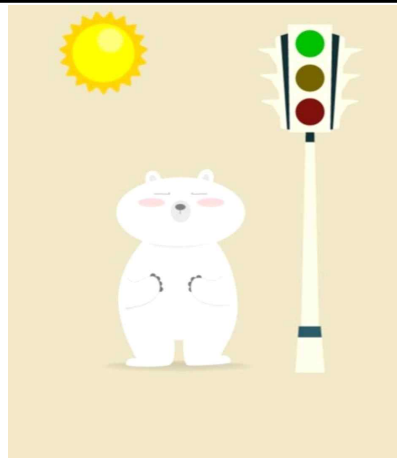
Q2 최근 6개월간 아래 질문에 얼마나 해당되시나요?
맞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모바일에서 척도가 잘릴수도 있으니 가로화면으로 보시거나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둔다.	☐	☐	☐	☐	☐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	☐	☐	☐	☐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다.	☐	☐	☐	☐	☐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	☐	☐	☐	☐
나의 방에 틀어박혀 있다.	☐	☐	☐	☐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람이 귀찮다.	☐	☐	☐	☐	☐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	☐	☐	☐	☐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	☐	☐	☐	☐
하루 종일 거의 혼자서 지낸다.	☐	☐	☐	☐	☐
몇몇 사람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	☐	☐	☐	☐	☐

< 자가진단 테스트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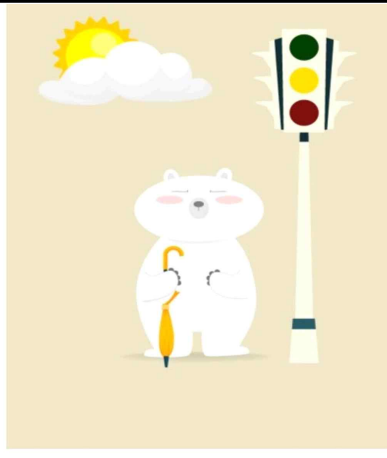
테스트 결과 귀하의 고립·은둔 상태에는
‘초록’ 신호가 켜져있네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고,
사회적 만남도 자주 가지며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까요?

[\[청년포털\]](#) [\[청년정책 안내\]](#)



테스트 결과 귀하의 고립·은둔 상태에
‘노란’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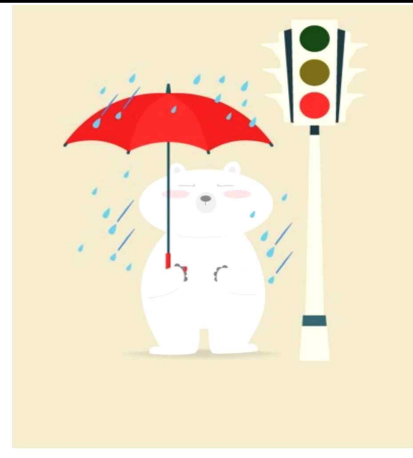
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소소한 대화와 새로운 취미만들기는 일상 속
즐거움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줄거예요.

귀하의 작은 변화를 보건복지부가 응원하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로
알아볼까요?

[\[청년포털\]](#) [\[청년정책 안내\]](#)



테스트 결과 귀하의 고립·은둔 상태에
‘빨간’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속마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게
중요해요.

귀하의 도전을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이 24년 하반기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 결과 안내 화면 >

붙임 3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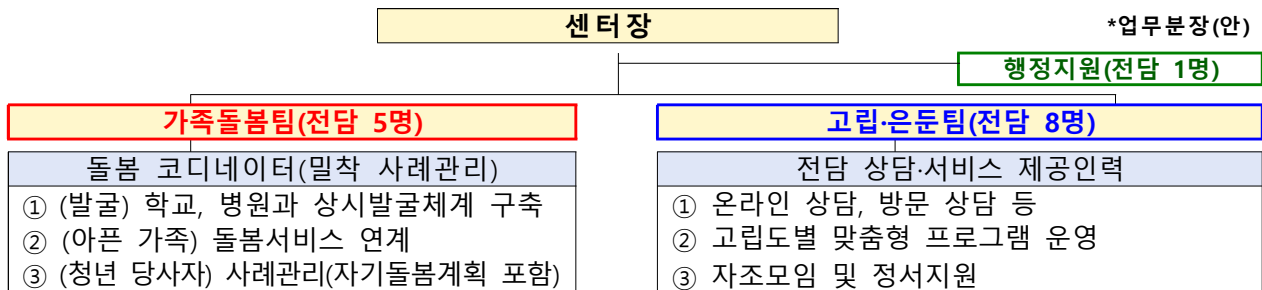
- (개요)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 전담창구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2년간('24~'25) 시범사업으로 선도모델 마련, 전국확대 추진

* (가족돌봄청(소)년) 전국 **약 10만명**(13~34세) 추정('22년)

* (고립은둔청년) 거둬들인 실패로 고립은둔 택하는 청년(19~39세) **최대 54만명** 추정('23년),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발굴,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

* 민간수행기관 지정('24.6월) : (인천, 울산, 전북) 각 시도사서원 / (충북) 충북기업진흥원



* 행정지원으로 청년인턴 센터당 6명 추가 파견(복지부에서 채용, 총 24명)

- ('24년 예산) 국비 3,403백만원(70%) / 자치단체보조(30%)

- (전담인력) 총 56명(4개소 / 개소당 14명: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 8명)

□ 지원내용

-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지역 내 중고교·병원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청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 전담인력이 현금지원과 연계해 자기발전계획 함께 작성, 아픈 가족을 위한 복지·돌봄서비스 외에도 교육장학금·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자기돌봄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960명), 우리카드 先포인트 지급(자기돌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기진단) 초기상담 후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자조모임,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소통기술 습득, 간단한 일경험 등